

醫學의 元祖 Hippocrates

(Hippocrates의 齒科觀)

BC 459-BC 375

奇昌德
치의학용어심의 위원장
기창덕 치과의원장

권위있는 의학아카데미
의 존경받는
한 사람으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명인의 한 사람

Hippocrates는 기원전 460년경 소아시아 서해안 가까이에 있는 Cos섬에서 태어난 의학사상과 치료법으로 인류에게 많은 恩義를 주어 의학의 원조라고 불리우는 실지로 살았던 사람이다. 이 Hippocrates의 생애에 대하여는 역사적인 潤色이 많이 되어 있어 神話같이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도 볼 수 있는 Hippocrates에 관한 문헌으로 Platon의 *Protagoras*와 *Phaedros* 두 대화집에 기록된 그의 실존을 그대로 믿을 수 밖엔 없다.

이 *Phaedros*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의하면 Hippocrates는 의업을 세습하고 있던 Heraclides의 아들로 Aesculapius의 19대 손이라는 전설과 같은 家系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록을 포함한 Hippocrates에 관한 최초의 전기는 그가 사망하고 나서 약 500년 후인 2세기경에 Epheses의 Soranus가 지나치게 Hippocrates를 추종하는 나머지 靈感을 받아 쓴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Hippocrates가 Cos섬에서 의학교를 경영하면서 전해 내려오는 지식으로 합리적인 의학을 창조하였다. 이 때의 본인은 물론 제자들의 의학문헌들을 집대성한 “Hippocrates 全集”이 영원한 진실이 얼마든지 포함된 高邁한 문학이 되어 전해지고 있다.

Hippocrates는 아버지 Heraclides 밑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당시의 의사들이 그러하듯이 Hippocrates도 많은 시간을 순례로 보내고 근방의 도시나 Aegean海의 여러 섬을 돌면서 의술을 베풀었다.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Hippocrates는 내과와 외과의 의술을 가르쳤고 생도 또는 환자들로부터 존경과 보수도 많이 받았다.

Hippocrates는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기는 절정에 달하게 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기적같은 치유례가 얼마든지 있고 여러가지 영광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그의 용모는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초상화를 통해 보면 대머리에 굴레수염을 하고 지적인 얼굴에 자신에 넘치는 늙은 賢人의 이미지를 풍기고 있다.

Hippocrates는 Cos섬을 중심으로 권위있는 의학아카데미의 존경받는 한 사람으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명인의 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장수하여 Larissa에서 세상을 뜰 때가 90세에 가까웠다.

Hippocrates의 일생은 Socrates와 Platon시대에 시작되어 Alexander대왕이 탄생하기 바로 전 Aristotle의 청년시대까지 이르고 있다. Pericles, Euripides, Aeschylus, Sophocles, Aristophanes 등은 다 같은 시기의 사람들이다. 당시 Greece에서는 위대한 지성이 배출되고 있었다. 정신계에서 제 1급의 시조들이 태어나고 있었다. 의학, 역사학, 문학비판 등 각 분야에서 각기 Hippocrates, Herodotus, Aristotle 등이 자리하고 있어 정신적 에너지가 일거에 폭발한 시대이기도 하였다. 이로 인한 서양문화는 전진하고 새로운 사고, 새로운 행동, 새로운 표현법을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Hippocrates학파의 의사들에 의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의학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들은 미신이나 마술같은 술법과는 손을 끊고 체계적 관찰에 의해 생명 구조에 조화되지 않은 원인을 열심히 추구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환자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일련의 윤리적 원칙 즉 ‘Hippocrates의 宣誓’를 지키었다. 이렇게 형성된 支柱에 인도되어 그 후로 의학사상은 성장하게 되었다.

당시 역사적으로는 환자를 제일로 생각하는 Hippocrates의 학파인 Cos 학파와 질환에만에 초점을 두고 치료하는 반도에 위치한 Cnidus학파가 있어 이 의사들은 현대의 의사와 같이 還元主義의 입장에서 질병의 진행

사항을 세밀히 분석하고 적합한 진단을 내리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적 규율에는 시체의 해부가 금지되어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시체에 대한 공포감과 관습상의 죄악시로 국부적인 인체해부로 어느정도 지식을 얻을 정도여서 정확한 진단에 정확한 치료가 어려웠다. 그러나 Cos학파의 의사들은 질병을 자연 전체안에 환자의 생명이라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로 보고 치료에 대해서도 자연적 상황에서의 회복에 두고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키고 환자의 환경을 바른 관계로 다시 만들어 주는 것에 노력하였다. 즉 자연의 작용을 바르게 도와주는 일이었다. 이 자연의 힘의 조화를 유지한다는 생각은 Hippocrates가 처음 발상한 것은 아니나 당시 질병의 원인이 4종의 ‘액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데에서 일어난다고 믿어 이 네 가지 기본 액체를 혈액, 황단집, 흑단집, 점액 등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액체는 입으로 섭취한 음식이 소화되어 항상 새로운 액체로 되는데 혈액은 심장에서, 황단집은 간장에서, 흑단집은 췌장에서, 그리고 점액은 뇌에서 만들어 진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이 액체는 불(火), 공기, 흙, 물 등 4원소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따라서 온

ΟΡΚΟΣ

Ὁ Ὀμιον Ἀπολλολεῖ ἔργον καὶ Ἀκλήριον καὶ Τρέϊαν καὶ Πυροειαν καὶ θεὸς πάντας τε καὶ πάσας, ἱστορίας ποιημένους, ἐπιστάδεια ποιῆσαι κατὰ δύναμιν καὶ κρίσιν ἐμὴν ἔργον τοῦδε καὶ συγγραφήν τῆριδε ἠγήσομαι μὲν τὸν διδάξαντά με τὴν τέχνην ταύτην ἰού γενετήριον ἐμῆς, καὶ βίον κοινωσάμεθα, καὶ ὅραον χρῆσθαι μεταδόσιν ποιήσομαι, καὶ γένοιτο τοῦ ἐξ αὐτοῦ ἀδελφοῦ ἰσὺν ἐπακροῦνται ἄρρῳσι, καὶ διδάξω τὴν τέχνην ταύτην, ἣν χρῆσθαι μάθηναι, ἀνευ μισθοῦ καὶ συγγραφῆς, παραγγέλλω τε καὶ ἀκροῦσθαι καὶ τῆς λοιπῆς ἀπάσης μαθητικῆς μεταδόσιν ποιῆσομαι οἷός τε ἐμῆς καὶ τοῦ ἐμὲ διδάξαντος, καὶ μαθητῆρι συγγραμμάτων τε καὶ ὠρεσιμῶν ὀνόματι ἱπποκρίτω, ἄλλως δὲ οὐδενί, διαστήματι τε χρῆσομαι ἐπὶ ὠφελείᾳ κομμένων κατὰ δύναμιν καὶ κρίσιν ἐμὴν, ἐπιδηγήσει δὲ καὶ ἀδικίᾳ εἰσέξω, οὐ δώσω δὲ οὐδὲ ὄφρα μισθὸν οὐδενί αἰρηθείς Πλατανίμω, οὐδὲ ὑψηλοτέρῳ οὐβωδιστῆρι τοῦτῳδε ἡμισθῷ δὲ οὐδὲ γυναικὶ πεσοῦν ὄφρα μὴ δώσω, ἀγνώως δὲ καὶ ὄνομα διαπραξέω βίον τῶν ἐμῶν καὶ τέχνην τὴν ἐμὴν, οὐ τεμείω δὲ οὐδὲ μὴν λιθιώνας, ἐκχωρήσω δὲ ἐργάτην ἀνδρῶν πρῆξις τῆριδε, ἐς οὐκίαν δὲ οὐκίαν ἀνέσιω, ἐπελείψωμι ἐπὶ ὠφελείᾳ καμνόντων, ἐκτός ἐξω πάσης ἀδικίᾳ ἐκόντης καὶ ὀφθαίης, τῆς τε ἄλλης καὶ ἀεροδύτων ἔργων ἐπι τε γυναικείων νοσημάτων καὶ αὐτοδύτων, ἐπιθερῶν τε καὶ δούλων, ἂ δ' ἂν ἐν θεραπείᾳ ἢ βίῳ ἢ ἀκροῦσω, ἢ καὶ ἀνευ θεραπείης κατὰ βίον ἀνθρώπων, ἂ μὴ χρῆ τοῦτε ἐκδιδείσθαι ἔξω, συγγένοιαι, ἄρρῳσι ἠγεμῶνός ἐσιν τα τοιαῦτα, ἔργον μὲν αἰν μὴ τοῦδε ἐπιστάδεια ποιῆσαι, καὶ μὴ συγγένοιαι, εἴη ἐπιπρωσθία καὶ βίον καὶ τέχνην διδόντες παρά πάσιν ἀνθρώποις ἐς τὸν αἰεὶ χρόνον, παραβαίνοντι δὲ καὶ ἐπιὸ κρέοντι, τάναντίς τοῦτων.

Hippocrates의 宣誓

(溫), 건(乾), 냉(冷), 습(濕) 등 네 가지의 특질과도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계가 사람의 건강을 체내의 체액에만이 아니라 사람 주위의 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아 그들이 생각하는 ‘자연’이라는 힘을 형성하고, 건설하고, 치유하는 힘이라고 믿어 사람의 신체는 스스로가 치유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Hippocrates 전서에 어느 곳에서나 여러가지 형태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4액체설(四液體說)의 주장이다.

이 이론에 의해 한 체액이 다른 체액보다 과잉상태에 있으면 병이 된다고 보아 이 여분의 체액을 환자의 체내에서 제거하는 방법과 과잉상태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뱀새를 가진 배설물을 조사하여 병의 원인을 알게 되면 병은 치유되는 것이다라고 믿어, 이 과정은 환자 옆에서 세밀한 관찰만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 행위가 ‘임상적; clinical’이라는 단어를 만들게 되었다. 임상이라는 말은 순수과학에 종사하는 이론학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고쳐 환자를 치료한다는 말로 즉 ‘침상의학’이라는 말이고 이에 종사하는 의사를 ‘임상의’라 하고 그 전문

을 ‘임상의학’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는 곳이 Clinic (진료소)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Hippocrates는 전체론적 의료로 인도하는 빛이 되고 Greece의학은 마법과 주술의 구렁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광명은 약 500년 밖엔 계속되지 못하였다. Roman제국이 멸망하고는 이 의학은 오해되고 왜곡되어 1000년이나 흘렀지만 이 타락한 Hippocrates의 의학의 유물을 지지하는 완고한 의사들은 새로이 발전하는 해부학자나 화학자의 앞에 장벽을 쌓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부터 약 200년 전부터 이들 장벽은 와해되고 새롭게 전개되기 시작하며 새로운 서양의학의 싹이 트게 되었다.

해부학자나 화학자는 기관이나 조직에서 진실을 찾아내고 최종적으로는 세포의 구조 그 자체에 이르러 드디어 과학계에 특정기관의 병리를 연구하는 기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임상의는 숙련된 눈 대신 현미경을 쓰게 되고 환자 대신 分子를 보는 상황이 되었다. 즉 환원주의가 대두되어 이와 같이 근대 의과학의 기초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Hippocrates전집에 나타난 구강영역에 관한 기록은 별도로 제정된 항목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나 각 권마다 전신질환과의 관계에 치아에 대한 기록, 치아의 질환, 구강의 질환 등이 기록되어 있다.

Hippocrates는 치아에 관한 표현을 증절치는 세지 않고 측절치부터 계산해 제 3대구치를 제 7치로 부르고 있다. 이 제 7치 즉 제 3대구치를 제혜로운 치아(οδονγες σοφρονισγηρες) 라고 하여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지치(智齒)라는 명칭이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그리고 치아의 발생에 관해서는 “최초의 치아는 모태내의 영양분에 의하고, 출생 후는 모유 또는 음식물에 의해 성장하고 처음 나온 치아는 7세가 되었을 때 탈락된다.” 등의 기록이 있다.

“최초의 치아는 모태 내의 영양분에 의하고, 출생 후는 모유 또는 음식물에 의해 성장하고 처음 나온 치아는 7세가 되었을 때 탈락된다.”

Hippocrates의 ‘生齒’라는 표제에는 그가 주장하는 ‘四液體說’에 의한 설명이 되어 있다. 즉 “치아가 맹출할 때에 설사에 기미가 있는 사람은 절대 설사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경련이 적고, 치아가 맹출할 때에 고열이 나는 사람은 좀처럼 경련을 일으키지 않는다. 치아 맹출 때에 영양상태는 양호하나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경련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 겨울철에 이가 나오는 사람은 이러한 점 외에 같은 조건이라면 비교적 쉽게 치아 맹출이 끝난다. 치아 맹출 때에 경련을 동반하는 사람 모두가 사망한다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 남는다” 등 치아 맹출이라는 현상이 생체의 조화를 깨뜨려 경련이라는 무서운 병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또 Hippocrates는 치통과 충치의 발생에 대하여 “치통에 관해서는 그 치아가 부식되어 동요하고 있을 경우는 발치하고, 부식도 아니고 동요도 없이 치통이 있을 경우는 요소법(窯燒法)으로 건조시키어야 한다. 그러나 구강정제도 효과가 있다. 동통이라는 것은 점액이 치근에 들어 갈 때 생긴다. 그러나 치아는 날 때부터 약해서 충치가 되어 있어 잇몸에 정착되어 있지 못할 때는 일부는 점액에 의해 또 다른 일부는 식사에 의해 나빠져서 충치가 된다.” 즉 충치를 일으키는 벌레(蟲) 대신 소질과 점액이라

우리들이 그를 숭배하는 것은 한 인간이 아니라 그가 전했다는 그 내용이고 수 세대를 거쳐 우리에게 주는 철학적 영향력 그것이다.

는 2가지의 내인과 영양이라는 외인을 들어 치아우식 발생의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부인병에 관한 장에서 “인도의 약제”라 하고 수탄(獸炭)을 권장하고 있다. 여기에 “여성으로 口臭가 있고 잇몸이 흑색으로 보기싫은 사람은 토끼의 머리 한 마리분과 쥐 세 마리(이것이 1인분인데 쥐의 내장은 간장과 신장만 남기고 없앤다)를 태워 만든 것과 대리석이나 흰 돌을 갈아 분말을 만들어 채로 쳐서 섞어 같이 사용한다”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이 당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원시적인 약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Hippocrates도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던 한방의학의 처방을 소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괴양, 농양, 염증 등과 악골의 골절 또는 하악탈구 등에 관해서도 원인과 치료법을 기술하고 있다.

Hippocrates의 생애와 그의 업적을 되돌아보며 Hippocrates의 실존 여하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또 전해 내려오는 Hippocrates에 관한 문헌이 그에 의한 것의 여부도 중요하지 않다. 우리들이 그를 숭배하는 것은 한 인간이 아니라 그가 전했다는 그 내용이고 수 세대를 거쳐 우리에게 주는 철학적 영향력 그것이다.